

특히 자기가 설교를 잘 한 것 같아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조지 렛풀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읽으면 자신의 분수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설교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거인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그런 마음을 지속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떠나지 않게 붙잡았던 것이다.

설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한다. 아무도 감히 자신을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선배 설교자들처럼 설교할 수 있게 되도록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쳐 복종시켜 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개 신학을 졸업하고 몇 년 안에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둘 것’이다(갈 6:8).

판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하여 수년을 목에서 피가 나는 훈련을 쌓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바른 소리를 내기 위하여 이 소리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을 거둘 것이다. **고려신학보**

##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연구

강 강영 (신대원 3)

1장/서론	2장/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3장/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4장/하나님의 속성과 자기 백성을 연결시키시는 성령	
5장/결론	※참고문헌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동기.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실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를 알기를 원하신다.

1) 그리고 그는 우리의 사랑, 예배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그와 아주 가까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를 사랑하거나 그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sup>2)</sup>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sup>3)</sup>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

1.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리차드 디한, 존 R.W. 스토프트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 충만], 박권섭역, (서울: 백합출판사, 1985), 1.

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上] 김종흠, 신유복, 이종성, 한철하 공역

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다.

이 글이 의도하는 목적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알기 위하여서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유익 사이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광범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 전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려면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 16:26~17:8, 막 9:1~8, 루 9:27~36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 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신적 권능을 직접 보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종들의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변화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능하심, 시간을 초월하심,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알아 보는 방법은 먼저 변화산상에 나타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밝히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또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왜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종들의 사역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 II.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 1.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모습

#### 1.1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 졌더라”고 표현되어 있다.

변형되사(*μετεμορφωθη*)는 시제가 수동 부정 과거로서 아버지를 그 행위자로 가진다. 더구나 명사 물폐(*μορφη*)는 항상 본질적 형태, 즉 본성을 표현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가면이나 순간적인 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의 사실상의 「물폐」(*μορφη*, 외모)가 변화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변모(*metamorphosis*)를 경험하셨다.

하나님은 이 변화를 “저희 앞에서” 즉 제자들의 면전에서 일으키셨다. 루 9:29~31은 변화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32절은 제자들이 심히 졸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잠에서 깨음을 받아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세심하게 덧붙여 기록했다. 예수께서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일이 잠시 계속되었으므로 세 제자는 앓아서 바야흐로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졸았던 것 같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졸린 눈으로 조금 떨어져 서 계신 예수를 바라 봤을 때 그 변화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의 신체와 인성이 영화롭게 되었던 것이다. 마가는 예수의 용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누가만 용모가 변화된 것(*εγενετο επερον*)을 기록했다. “해 같이 빛나며”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이다. 부정과거 「메테몰포데」(*μετεμορφωθη*, 변화 되사)와 「엘람푸세」(*ελαμψη*, 빛나며)와 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다음의 <에게네토> (*εγενετο, became*)는 객관적 사실, 즉 예수 자신의 실제적 변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 제자의 눈과 마음에 나타났던 주관적인 것만을 기록함이 아니다. 예수가 제자들 보다 높은 곳에 서 계실 때 태양 광선이 그의 얼굴과 옷을 비추었다는 합리주의자들의 설명은 또 하나님의 이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용모를 쳐다 봤을 때 그들은 태양 그 자체처럼 찬란한 광채를 보았다. 이 광채는

예수의 온 형체에까지 확대되었다. 그 까닭은 그의 옷도 순수한 광채의, 투명성의 흰색을 띠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광채를 생각하기보다는 (출 34:29, 고후 3:13) 우리는 계 1:13~15에서 요한의 예수에 대한 환상을 생각할 이유가 훨씬 크다. 베드로는 벤후 1:16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썼다. 요한은 요 1:14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sup>4)</sup>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 모습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본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는 비록 무의식 중에 한 말이지만 그 당시 베드로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마 17:4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포크리데이스」(ἀποκριθεῖς, “여짜와” <대답하여>)가 넓은 의미로 사용된 여러 가지 실례의 하나를 본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세 제자는 그저 열심히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의 말은 그때의 상황에 대한 반응에 불과했다. 그 말한 내용은 이 큰 체험에 대한 그의 반응을 나타내 준다. 그는 그가 사랑하던, 지금은 영광 중에 있는 주인, 예수께 대해서만 말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말이 어리석음에 가까웠다고 암시한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마가는, 베드로와 그의 두 동료가 큰 두려움에 싸여 있었으며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지식을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얻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것을 「칼론」(καλὸν, 좋사오니)으로 느꼈다. 간단한 원급“excellent”가 비교급이나 최상급보다 더 좋은 표현이다(영역의 경우).

베드로는 마치 자기와 동료들이 하늘나라 가까이에 있었던 듯 느꼈다.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가득하긴 했으나, 신적 위험을 갖추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예수와 (벤후 1:16)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두 하늘나라 사람 (눅 9:31)과 함께 하늘 나라에 있는 듯이 느꼈던 것이다.

베드로의 오직 한가지 소원은 이 체험을 연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4. Richard C.H.Lenski [렌스키 주석 마태복음](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253

만일 예수께서도 팬참으시다면, 영광 중에 있는 세 사람-예수, 모세, 엘리야-을 위해 장막 셋을 세우겠다는 제의를 하게 되었다.<sup>5)</sup> 즉 그는 그 당시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에 반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은 영광 중에 있는 예수와 모세, 엘리야가 인간들처럼 밤을 지새기 위해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지만 그 당시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 변화산 사건 이전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마 16:26~28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썼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는 변화산 사건 앞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주로 오실 것을 말한 뒤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해 주고 있다.<sup>6)</sup>

5. Ibid., 72~73.

6. Hilary, Theophylact, Bengel 등이 이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논문을 쓰고 있는 본인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견해이다(Allen, Plummer). 둘째, 예루살렘 멀망으로 보는 견해이다(Westein, Clake). 셋째, 부활과 오순절 때 임한 성령 강림이 인자인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진 증거가 된다는 견해이다(Calvin, Grotius). 네째, 부활이나, 오순절, 그리고 변화산 사건 등 특수사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의 부활 후에 여러가지 방면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의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지역에 까지 급격히 확산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디스리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견해들 모두 이 본문이 변화산 사건을 두고 언급한 말이라는

## 1.2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앞 장에서 우리는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 볼 때 예수님만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청하였다. 즉 그는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았다.

변화산의 모습을 본 요한은 요일 3:2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은 변화산에서 부활의 모습을 한 예수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이와 같은 모습을 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우리가 보는 예수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변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모습인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을 통해서이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한 사람이 두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다.<sup>7)</sup>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는데 그들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주장을 반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지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본문이 변화산 사건을 가르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본문이 네가지 다른 견해를 포함하면서 변화산 사건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성경의 방법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 24장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가르키면서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7. 에녹의 승천 사건은 창 5:24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있다. 여기서 ‘데려가다(נִסַּחַ)’란 말은 ‘옮겨 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 갔음을 말해준다. 즉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56세 때에 승천한 것이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왕하 2:11에 “두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라고 나와 있다.

##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연구

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전 15:50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산상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할 때 한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는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이다.<sup>8)</sup>

부활의 모습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과 엘리야는 몸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나, 모세는 몸이 죽은 자로서 어떻게 부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유다서가 주고 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라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뱅겔은 “생명이 있는 모세의 똑같은 몸에 대하여 평범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신비하다고 하여 우리의 편의대로 이 말의 평범한 사실을 변개하지 말아야 한다. 신 3:4:5~6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땅에서 죽어 벨브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라는 말을 가지고 사탄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할려고 하였을 것이다”고 말한다.<sup>9)</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미 죽었지만 죽은 그의 몸을 부활 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해서 볼 때 변화산상에 나타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인 것이다.

## 2.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속성인 바 하나님의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8. 신 34:5~6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땅에서 죽어 벨브을 맞은 편 모압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9. 뱅겔 [뱅겔 주석 유다서] (서울: 백합출판사, 1978), 272.

사실을 부정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주나 이 시공간적인 세계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나타내셨다.

## 2.1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sup>11)</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의 모습이었다. 이 부활은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변화산의 사건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죄가 없는 자인가? 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피가 없어도 부활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고로마서 5장 12~14에 나와 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나와 있다. 즉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부활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도저히 부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의 개인적인 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신 32:51은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 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고 모세의 죄악에 대해 말하고 있다.

10.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 上] 권수경, 이상원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253.

11. 벌콥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이란 그 자체 안에서 고려되는 신적 존재의 무한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양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질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르(Orr)박사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궁극적으로는 내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떠한 제한이나 결핍도 없다는 것과 무한한 잠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의 완전성과 동일하다.

왕상 19:4에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낙낙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 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는 엘리야의 낙심의 죄가 나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부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인 변화산상에서 그들은 부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며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의 방해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갖은 전략을 짜지만 이러한 사탄의 방해 전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끌려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예수님을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피해 가시도록 유도한다. 사탄은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회유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다.

또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한 일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도 나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 보았을 때 베드로는 마 16:16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말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 하리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tan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사tan은 베드로를 조종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사tan의 목적은 어떻

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방해하던 사탄이 그가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조종하였던 것이다. 요13:2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 말하고 있다. 즉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다. 사탄은 교활하고 영악한 자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는가를 알 수 있다. 사탄의 계략에 믿음의 용장 다윗도 넘어졌고 지혜자 솔로몬도 넘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 사탄이 자기가 직접 예수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가룟 유다를 조종하였다는 말인가? 사탄이 자기가 한 일을 잊어 버렸다는 말인가? 그가 그 순간에는 명청이가 되었던 말인가? 사탄이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를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19명의 왕이 통치하였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어지는 동안 아홉개의 왕조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 즉 다윗왕조만이 계속 유지되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왕때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엘라왕때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고,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 왕때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스가랴 왕때 살룸이 모반하여 왕이 되고, 살룸왕때 므나헴이 그를 암살하고 왕이 되고, 베가 왕때 호세야가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은 아홉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인 자가 죽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역사를 가졌다.

이에 반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한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남유다의 왕조가 바뀌지 않은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정치를 잘했

다거나, 북이스라엘과 달리 반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남유다에서도 반역은 있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반역이 일어나도 반역을 일으킨 자가 남유다의 왕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자를 몰아내고 죽은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왕조가 계속되게 하였다.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왕 여호람을 방문했을 때 아하시야는 여호람과 함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다윗왕조는 바뀌지 않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다. 물론 아하시야가 죽은 후 아달랴가 왕족을 멸하려고 하였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6년만에 아달라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다. 요아스왕도 종들에 의해 살해되지만 그 살해한 자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마샤가 왕이 된다. 아마샤 역시 음모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지만 음모자들이 왕이 되지 않고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아사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된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신복들에 의하여 살해되지만 그 살해자들이 왕이 되지 않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된다.

이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수많은 반역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왕조 즉 이새왕조가 계속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야가 나설 것이라는 예언 때문이다.

사 11:1, 2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다. 남유다가 한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다. 메시야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이 여덟 번이나 왕조가 바뀔 때에도 남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야이심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경외하는 자 뿐 아니라 사탄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 까지도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완전성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다.

요 11:47~53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 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

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에 대제사장 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이더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나라”고 나와 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였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었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였다.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할 때 그의 의도는 십자가의 대속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를 혼란케하지 못하도록 예수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바의 말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과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sup>12)</sup>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사람과 천사 등과 같은 인격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에도 적용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루어 가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4:35~41에 보면 어느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리리 바닷가를 건너실 때의 사건이 나온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차게 되었다. 제자들은 불안하여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듣고 일어난 예

#### 12. 성경구절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21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1:30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전도서 7:13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예레미야애가 3: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라?”

야고보서 4: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어늘.”

요한계시록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졌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자신들과 예수님께서 다 죽게 된 것을 염려 하였지만 삼위의 둘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연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며 변화산의 사건은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이다.

위의 사건들을 살펴 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지신 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 2.2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에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양식은 단순히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지속되는 영원이다(시 90:2, 102:12, 액 3:21).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철학의 언어가 아닌,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후로 무한히 연장된 연속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사실상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일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성은 모든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영원성이 하나님께 적용 된다는 사실이 벤후 3: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에서 암시된다.

오르박사(Dr. Orr)는 “시간은 계속하여 존재하는 대상들의 세계와 엄밀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시고 시간의 각 부분에 계시나, 그럼에도 그의 영원성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간에 대비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존재는 연월일시(年月日時)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삶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는 존재한다” (I am)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인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를 하나의 나누어 질 수 없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 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이 변화산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변화산상에 서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할 변화산 사건이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는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머니보다 먼저 있는 아이는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시간이 거꾸로 된 것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냉동 인간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다.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어서 그 병에 대한 약이 개발될 때까지 냉동 인간으로 있다가 50년 후에 깨어나서 치료받는 내용이다. 어떤 병에 대한 치료약이 있더라도 그 약이 미래에 개발될 약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결핵에 대한 약이 많이 개발되어 결핵에 걸리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년 전에는 결핵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 현재 개발된 좋은 약들이 100년 전으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 전에 일어났다. 부활이 죽을 병에서 완전히 완쾌된 모습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그 죽을 병에 대한 유일한 약인데 아직 약이 개발되기도 전에 그 약으로 인해 병이 나은 것이다.

이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하나님의 속성 중 영원성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가지고 현재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나절 동안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치시겠다는 표시로 아하스의 일영표가 15도 뒤로 갔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임과 시간의 주권자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당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이 해와 달이었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가를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셨고 뒤로 가

13. Ibid., 254.

게도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 카다쉬(קדש)는 ‘자르다, 분리하다’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적인 표현들 중의 하나로서, 주로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다. 같은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ἅγιος)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거룩함을 주로 도덕적인 특성이나 종교적인 특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 혹은 관계’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원래의 의미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며,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그들 위에 높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sup>14)</sup> 이사야 6:1~3에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ấp들은 모셔 셨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 볼 것은 범죄 하지 않은 천사인 스ấp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도덕적 개념을 떠나서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한 성경에서 특별히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신적 거룩함에 관한 윤리적 관념은 하나님의 엄위로운 거룩함의 관념과는 분리될 수 없다.

윤리적 관념은 엄위로운 거룩함의 관념으로부터 발전하였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거룩성의 기본 관념도 역시 분리의 관념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도덕적인 악이나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의 거룩함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교제하실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엄위로운 순결, 혹은 윤리적인 엄위를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적인 거룩함의 관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분리

14. Ibid., 268.

와 같은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며 도덕적 탁월성 혹은 윤리적인 완전이라는 적극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엄위로운 거룩함에 대하여 철저한 무의미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윤리적인 거룩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불결의 감정, 즉 죄의식의 의미로 나타날 것이다.<sup>15)</sup>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거룩함의 두 가지 모습들이 잘 나타난다.

마 17:2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막 9:3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즉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벤후 1:16에서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썼으며 요한은 요 1:14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막 9:6에서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화산상에서 거룩함의 두 번째 측면인 죄와 분리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려면 죄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해결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거룩하심과 죄와 구별되는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 4. 하나님의 사랑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모세와 엘리야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

15. Ibid. 268.

룩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 놀 9:31에서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주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9~10)”

변화산 사건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본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고 말한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비참한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엄청난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기쁨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눅 10:20). 마찬가지로 이세상의 어떤 고난도 지옥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데서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신 사람들의 사악하고 비참한 상태를 통해서도 잘 살펴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때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 III.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이 논문의 앞 장(2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범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들이다. 이것은 단지 변화산 사건에 한정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자로서 창조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냥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요 20:31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고, 요일 5:13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 1.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심을 자기 백성으로 알게 하여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심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심

히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까지도 자신들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로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야이심을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선생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들의 꿈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여 실의에 빠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제자들의 방법은 판이하게 달랐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방법과 이해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케 된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약의 하박국서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였다. 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두번째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군사들을 사용하신 일이 그의 거룩한 성품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악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은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벌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악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며 이 속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박국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진술한 다음,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부닥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절대적인 요소가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속성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개역성경:반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는 ‘반석’을 뜻한다.

넷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sup>16)</sup>

하나님의 속성과 자기 백성들의 신뢰와의 관계는 마 11:1~5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세례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라”라고 말했던 자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메시야가 맞습니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16. 마틴 로이드 존스 [하박국 강해] 박영옥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0), 41~47

##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연구

세례요한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자신은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메시야로 소개한 예수님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 주시지도 않았고, 악을 행한 헤롯을 벌하지도 않으셨다. 이같은 사실을 세례요한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은 “요한아!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임을 알아라.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신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한다.

##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실 때에는 자신의 종들의 사역과 연관하여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자신을 그 종에게 계시하시면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직분을 맡기실 때, 먼저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의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이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 3:14, 15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이심과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상의 여러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의 직분을 행할 때 그의 힘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영원하심과 거룩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났음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모세의 사역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출애굽을 이룬다는 것이 더 어려워진 형편이었다. 전에는 그래도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쫓겨난 늙은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모세가 출애굽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였고 주변 환경은 절망적이었다.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병력도 없고 재산이나 학벌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속성인 무한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종들의 사역과 연관하여 나타난다.

### 3.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실 때에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속성에 참여함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도 그의 속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함을 요구하신다. 베드로후서 1:4을 보면 “이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말해 주고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11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나타낸다.

또 베드로전서 1:15~16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데어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변화산상에서 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

야도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본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3절에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자기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며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함을 나타낸다.

#### IV. 하나님의 속성과 자기 백성을 연결시키는 성령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속성들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만약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의 백성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sup>17)</sup>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여 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한 것도 아니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 뒤에 이어서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온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끓어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17.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죽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로마서 8:14,15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와같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고 있다.

뒤에도 귀신을 쫓아 내치 못하였고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께 책망 받았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 1.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연결시킨다.

요 14:26에 “보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나와 있고, 요 16:13, 14, 15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고 나와 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였지만 오순절 성령강림 후 그들은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베드로전후서에서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일았다가 이상히 여겼는데 이는 제자들이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고 전파했기 때문이다.

#### 2.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지 못하였다.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혀가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며,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하여 버렸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비교하여 오순절 후의 상황이 변하여 두려워할 요소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4:12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하면서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나온다.

### 3.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8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5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후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능력 있게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한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앉은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며,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 4.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과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잘 나타나 있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삶이다.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맷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써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이 있은 뒤에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서로 자신이 크다고 싸웠다. 이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그들은 그들이 크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이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목하였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겉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2:44~47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액 2:21, 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여기에 대하여 핸드릭슨은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성령은 이것을 성취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성취되기 위한 요소가 되신다”<sup>18)</sup>고 말하고 있으며, 윌리엄 바클레이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이것

18. 윌리엄 핸드릭슨 [핸드릭슨 주석 에베소서] 신성종 역,(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9~24

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진다”라고 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함을 말해 준다.<sup>19)</sup>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인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2:17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을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함께 요청함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종말론적 부활을 이루는데 성령님이 역사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핸드릭슨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계 22:7, 12) 그 신부 즉 그의 교회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한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신부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이다. 성령과 신부는 항상 함께 동행하고 역사 한다(롬 8:16). 이들은 끊임없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sup>20)</sup> 렌스키는 “λεγοντιν「례구신, 현재 명령법」의 시제에 주의하라. 오래 오래 기다린 이 기도의 부르짖음, 영원한 연합을 오래 오래 신부가 동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1)</sup>

이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일을 가능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결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9. 윌리암 비클레이 [비클레이 주석 애베소서] 서기산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306

20. 윌리엄 핸드릭슨 [핸드릭슨 주석 요한계시록] 최태영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531

21. Richard C.H. Lenski [렌스키 주석 요한계시록] 정혁조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8), 531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무한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이러한 속성은 자기 백성들에게 상관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였고 그들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성에 참여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참여 즉 자신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를 수가 없었다. 성령께서 역사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시를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신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신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고려신학보**

## 참고 문헌

- 리차드 디한, 존 R.W. 스토프[하나님의 속성과 성령 총망] 박권설역, 서울 : 백합출판사, 1985
- 루이스 벌콤 [조직신학 上,下] 권수경, 이상원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2
- 풀 틸리히 [조직신학 I, II] 김경수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 H.J. 크라우스 [조직신학] 박재순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제리 브릿지즈 [하나님을 의뢰함]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1
- 제임스 맥콘기 [성령의 삼중비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마틴로이드 존스 [복음의 핵심] 이중수역, 서울: 양무리서원, 1993  
[하박국 강해] 박영옥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0
- 이중수 [내 손을 불드신 주님] 서울: 양무리서원, 1993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上,中] 김종흠, 신유복,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칼빈 주석 에베소서] 서울: 성서교재발행사, 1981
- 윌리엄 핸드릭슨 [핸드릭슨 주석 마가복음] 최태영역, 서울: 아가페 출  
판사, 1993  
[핸드릭슨 주석 누가복음] 김운배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핸드릭슨 주석 애베소서] 신성종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핸드릭슨 주석 요한계시록] 최태영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윌리암 바클레이 [바클레이 주석 에베소서] 서기산역, 서울: 기독교문  
사, 1993  
[바클레이 주석 요한계시록] 정혁조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Richard C.H. Lenski [렌스키주석 마태복음] 서울: 백합출판사, 1978  
[렌스키주석 누가복음] 서울: 백합출판사, 1978  
[렌스키주석 고린도전서] 서울: 백합출판사, 1978  
[렌스키주석 베드로후서, 유다서] 서울: 백합출판사, 1978  
[렌스키주석 요한계시록] 서울: 백합출판사, 1978
- 풀핏주석편집위원회 [풀핏주석 유다서] 이병철, 이희숙역, 대구: 보문  
출판사, 1981

- 그랜드주석편집위원회[그랜드주석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울:성서교재  
간행사, 1992  
[그랜드주석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92  
[그랜드주석 고린도전후서]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92  
A.Skevington Wood [엑스포지스터스 성경주석 에베소서] 서울:기독  
지혜사, 1980  
벵겔 [벵겔 주석 유다서] 서울: 백합출판사, 1978